

독립연구·자유교양학·신입생세미나, 학생 맞춤형 교육

▶면에서 이어짐

한편 신설된 ‘빅뱅에서 문명까지’ 수업은 기존 중핵교과와 다르게 80명 이상의 대형 강의 수업 형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중핵교과는 토론형 수업 중심이지만 대형강의로 개설하면 취지가 퇴색되지 않겠냐는 지적에 유 학장은 “전체 강좌 수를 증설하는데 제한이 있고 수업을 늘릴 경우 전임교원을 넘어 비전임교원까지 구해야 한다”라며 “과학 중핵은 온라인-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교양학 트랙

자유교양학 트랙은 ‘교양 전문 트랙’을 취지로 내세우며 신설될 예정인 후마의 새로운 과정이다. 유 학장은 “학위 인정이 힘들기 때문에 트랙으로 신설해 이를 이수할 경우 수료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초의 자유교양학이라는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전공이 목표였지만 이 경우 ‘정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식 학과로의 출범은 힘들다는 것이 후마 측의 설명이다. 트랙은 정원이 없어도 신설할 수 있고 교육부의 승인도 필요없다. 유 학장은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며 “교무처와도 신설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유교양학 트랙은 특정 전공보다는 광범위한 전공과 많은 교양을 듣게 하는 특징이 있다. 유 학장은 “많은 학생들이 특정학과를 지정해 입학하지만 폭넓은 교양을 듣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있다”며 “자유교양학 트랙의 논의는 3월 말에 시작해서 4월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후마 주도로 진행될 것이며 빠르면 다음 학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입생세미나

서울캠 신입생세미나(신세)가 신설된다. 유 학장은 지난번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캠 기숙사 수용률이 낮아 저녁 6시 시작되는 신세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강좌 희망자를 받아 6개 강의가 신설됐다. 유 학장은 “국캠은 신세가 운영되지만 서울캠은 지금까지 없어 1학년 때 대학 생활에 대한 지침을 해줄만한 수업이 없었다”며 신세 신설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캠 신세는 전공설계, 인생설계 2가지 목표를 가지며, 수업방식은 멘티-멘토 형식의 48명 정원으로 신설됐다. 유 학장은 “올해는 지원한 신입생만 받았지만 호응이 좋으면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서

울캠 신세에 지원한 멘티들은 사회봉사 1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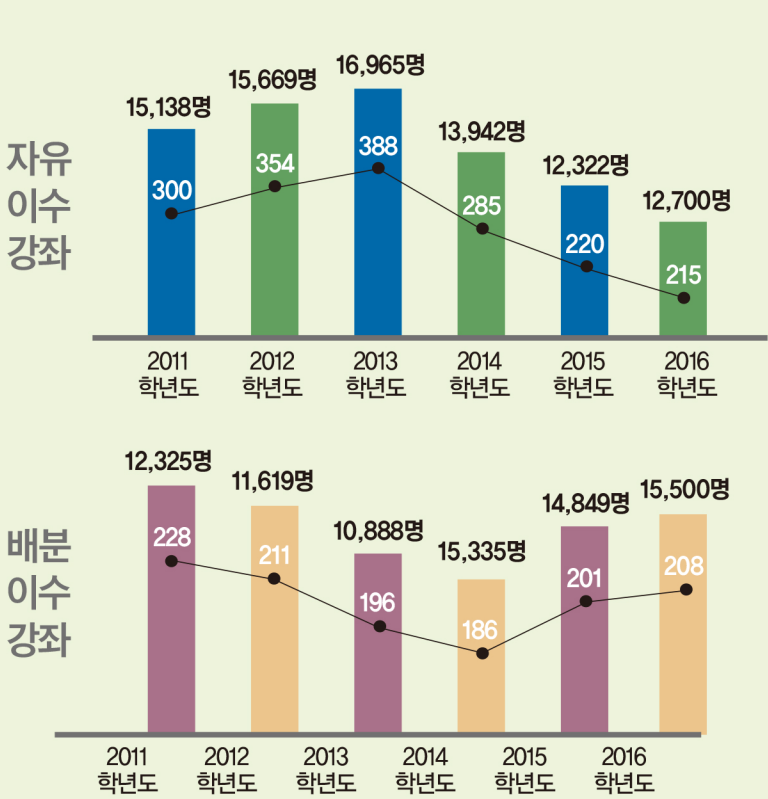
#독립연구

이번에 신설되는 독립연구 교과는 학생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직접 계획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인 학습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12월 유 학장은 “3학점으로 개설될 예정”이라 전했다. 처음 시행되는 것인 만큼 3학점을 인정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 2학점으로 축소해 개설된다. 본래 방학 중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연구를 구상하고 지도교수를 섭외한 후 승인을 받아 2월 19일까지 신청하는 내용으로 공고했다. 하지만 방학 중에 교수자와 학생 간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는 의견을 수렴해, 정정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8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해당 2학점을 정정기간 내내 비워두면 독립연구가 불발될 경우에 18학점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유 학장은 다른 과목을 수강 신청해 두었다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취소하면 되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 답했다.

독립연구 지도교수로는 전임교수와 시간강사 모두 가능하며, 교수 1명 당 최대 4개 주제까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SNS상에서 독립연구 과목이 시간강사의 입지를 더 좁히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학생에게는 2학점을 인정하나, 교수자에게는 0.5시수에 해당하는 강의료만 지급하는데, 교통비나 기타 공간 확보를 위한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시간강사가 독립연구를 맡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후마 행정실 측은 독립연구 과목은 교강사와 학생 간 관심영역이 일치하고, 독립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 것이므로 강의료가 시간강사를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유 학장은 이러한 시스템이 음악대학의 개인레슨 형태의 전공실기 강좌처럼 수업시간은 4시간이지만 전임교수에게 0.5시수만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활동비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강사와 전임교수에게 동일한 시수를 인정하며, 독립연구의 개수를 제한하지 않는 현 방식에서는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학장은 “독립연구는 소규모로 진행되는데 2시수를 전부 인정한다면 최소 20명, 많게는 100명 가량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3학점에 3시수를 받는 강사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의제기도 있었다”면서 “전임교수가 진행하는 ‘논문지도’가 현



〈2011~2016 후마강좌 개설 현황〉



※ 2016학년도 수치는 예측수치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재 0시수인 것과 유사한 경우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학생사회에서는 인원구성과 시간대가 자유로운 수업이라는 이유로 강의실을 따로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개인 연구공간을 갖추지 못한 시간강사들은 추가 경비지출 등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 학장은 “현재 후마 행정실 좌측에 위치한 기자재실을 개조해 4개 팀을 동시 수용할 만한 공간을 마련 중”이라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공간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독립연구는 교양, 전공, 실천, 참여, 창업의 5개 분야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애초 기획의도처럼 2학점 상당의 연구 가치를 갖는 유의미한 주제가 아닌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맹점을 보인다. 유 학장은 “독립연구 자체가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과목이므로 주제를 선별적으로 채택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며, “학생과 교수자의 학문적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범 시행 이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도적으로 점차 보완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우리 신문과 가졌던 지난해 12월의 인터



KYUNG HEE UNIVERSITY

Global Collaborative 2016 Summer Program

“국내외 석학 및 국제기구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세계 여러나라 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을 경험하세요!!”

- 프로그램 기간
- 개설강의
- 참여대상
- 신청기간
- 장학금
- 문의

2016.07.04~2016.07.29, [4주간]
“Humanity, Civi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에 특화된 20개 강의(GC홈페이지 참조)
국내외 대학(원)생
2016.03.14~2015.04.30(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경희대학생의 경우 미래문명원 네오르네상스장학 신청 가능(후후 공지예정)
미래문명원 Tel: 02-961-0995 Email: summer@khu.ac.kr 홈페이지: http://gafo.khu.ac.kr/gep 페이스북: www.facebook.com/khugc

